

크고 흰 영산 태백 더 오를곳 없는 산마루

백두대간 속으로 <26>

태백산



태백산에 있는 세계의 천제단 중 가장 높은곳에 있는 천왕단. 옛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비라도 금속성 고체처럼 느껴지는 겨울 밤, 산 마루에 서서 별을 본다. 시린 눈 달래느라, 톨 먹는 병아리마냥 하늘 보고 땅 보며. 그러다 문득, 저 산 아래, 아련한 추억처럼 가을거리는 불빛을 본다. 산 마을 외딴 집 좁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사람의 빛이다. 아, 저곳에도 별이 있었구나.

내 어릴 적, 문종지 비집고 들어온 조각 바람에도 마구 흔들리는 앞전구 아래서, 내 그림자와 키재기를 하며 겨울을 냈다. 어젯밤은 고구마, 오늘밤은 무를 꺾어 먹으며, 그리고, 참 많은 꿈을 꾸었다.

산 아래로 내려앉은 별빛을 보며 생각해 본다. 만약 저 집에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다면 지금 무슨 꿈을 꿀까? 빨리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는, 도회지로 이사를 가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빛나는 별을 단 군인이 되는... 그런 꿈을 꿀까? 그 무엇이 됐건, 절대로, 꿈꾸기를 그만 두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겨울 밤, 산 마루에 서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



구룡산에서 바라본 백두대간. 멀리 보이는 산이 태백과 함백이다.



태백산엔 이미 상고대는 물론이거니와 눈꽃까지 피었다. 천제단에서 장군단쪽을 보았다. 뒤로 높이 솟은 산은 함백산.

태백산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늘이 비좁아진다. 그 틈새로 난 길(998번 지방도로)을 따라,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을 거쳐 경북 영화군 춘양면으로 넘어가다 보면 백두대간 등성이에 고개 하나가 깔려 있다. 도래기재다. 이곳에서부터 구룡산 넘어 신선봉, 깃대봉, 부소봉 지나 태백산, 함백산에서 다시 허리를 낮춰, 함백산을 오르기 전에 잠시 숨을 돌리는 화방재까지가 이번 여행의 길이다. 도상거리 24km를, 하나 같이 우뚝한 봉우리이고 험한 험한 험한 길이지만, 산세가 그리 야박스럽지 않은데다 유산들이라 그리 고생스런 길은 아니다.

도래기재(780m)에서 구룡산(1345.7m)을 오를 때는 서늘지 말아야 한다. 돌머리가 튀비알이기도 하지만, 일 벌군 참나무 숲 사이로 시리도록 푸르른 소나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세한(歲寒)에 더 돋보인다는 옛사람의 말이 잘못 떠오른다.

구룡산의 꼭대기는 두어 시간 다릿잡이는 과분할 만큼의 빼어난 조망을 안긴다. 이곳에서는 태백과 함백의 웅취가 순백이면 달을 듯 눈높이로 걸린다. 밤색 태백의 풍마루는 눈을 돌고 있다. 한밤의, '크고 하얀 산'이라는 태백의 우리말 뜻에 잘도 어울리는 모습이다.

구룡산에서부터 신선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태백산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줄 정

정상 천제단 해마다 하늘에 제사 유일사·망경사·단종비등 볼거리

도로 중앙쪽으로 휘돌아 깃대봉(1370m)으로 오른다. 구룡이 가까운 영국에다 조릿대로 덮여 있는 깃대봉에서부터 길은 순해진다. 그러나 이 때부터는 눈길이다. 한동안 발바닥과 눈이 실랑이를 하는 것 같더니 곧 정이 든다.

깃대봉에서는 눈 앞에 태백산(1560.6m)을 두고 곧장 나아가지만, 겨울 짙은 해는 부소봉(1546.5m)에 닿기도 전에 제 온 곳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 별빛은 눈길 위에 잠깐다리를 놓는다. 그 별을 지켜 밟으며 부소봉 정상을 왼쪽으로 비껴 살포시 가리켰었다 솟으면 천제단이다.

아침, 또 새날이 열리고 나는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선다. 아득한 옛날부터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심경은 이미 오래전에 고려 말의 문신인 안축(1287~1348)이 노래한 바 있으니, 나는 그저 옮기는 것만으로 분에 넘치는 즐거움을 얻는다.

허공을 글썽 올라 안개 속으로 떨어서니

비로소 더 오를 곳 없는 산마루임을 알았다.

동그란 해는 머리 위에 나직하고, 물레의 못 봉우리들은 눈 아래 내려앉네. 나는 구룡에 몸을 실으니 화의 풍에 올라탄 듯하고, 허공에 걸린 물줄기는 하늘 오르는 사다리인 양하네.

비 그치지 골짜기마다 시냇물은 흘러 넘쳐 오실천 구비구비 가이없이 땀도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고려 때의 사 람인 최선(崔善)의 예안 용수사가(龍壽寺記)를 인용하여 "천하의 명산은 삼한에 많고, 삼한의 명승은 동남에 가장 뛰어나다. 동남에서는 태백이 가장 빼어나다"고 적고 있다.

신라 때부터 태백산(북악)은 토암산(동악), 계룡산(서악), 지리산(남악), 부악(중악, 팔공산)과 함께 오악(五嶽)으로 기림을 받았고, 고래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올려왔다. 정상의 천왕단 말고도 북쪽에 장군단, 남쪽에 하대(이름을 알 수 없음)이 있다.

태백산이 영산으로 발돋워지는 것은, 환인(桓因)의 서자이자 단군(檀君)의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곳이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기인한다. 삼국유사의 기이편을 보면, "환웅은 우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 했다"고 적혀 있다. 하나, 일연 스님은 분명히 태백산 옆에 '지금의 요형산'이라고 명기했고, 지리직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는 '백두산'이 바로 그곳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로서 태백산은 보통명사에 가깝고, 단군신화에서 말하는 태백산은 백두산이며, 오늘날의 태백산은 신시(神市)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으로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태백산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아 나라를 세울 곳으로 짐작할 만한 그런 형상과 기운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천제단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유일사가 자리한 북서쪽으로 내리막을 이루어 화양재로 향한다. 천제단에서 북동쪽으로 500m를 아래에는 자장물사가 문수보살이 돌부처가 되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물을 자었다는 망경사가 있고, 그 옆에는 동강이라는 물그늘의 강으로 태백산의 산신이 되었다는 단종의 비가 세워져 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순재식(사진작가)



법보종찰 해인사 1029일 영가천도대법회

- 1029일 동안 49재를 21회 봉행 -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불기 2544년(2000) 11월 2일에 법보종찰 해인사의 주지 소임을 맡은 세민입니다. 삼라만상 온누리에 부처님의 광명과 복덕이 두루하여 세상은 안락하고 평화로우며 우리 불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옵길 부처님께 축원올리며 그리고 이 지면을 빌어 모든 사부대중께 인사드립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이 땅에 퍼고자 화엄의 중중무진한 진리를 받들어 의상조사의 법순인 승용, 이경 두 큰스님이 해인성지를 열어 이 민족의 번영과 중생들의 복권이 되어온 지 어언 1200년이 넘었으며 그리고 민족의 보배이자 인류의 문화 유산인 팔만대장경관을 봉안하고 법보종찰의 구심점으로 추앙되어온 지 어언 600여년이 흘러온 해인사는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처이며 정신적 의지처일 뿐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가는 총림도량으로 한국불교의 요람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상징인 21세기 새천년이 시작되었으나 동서와 남북은 서로 반목하고 사회의 각 계층과 세대간에는 서로 양보없는 갈등으로 분열되고, 삶의 터전인 환경은 파괴되어 인간의 참된 길마저 방향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업력 소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건 이래 어려운 고비마다 민족의 번영과 중생의 등불이 되어온 해인사에서는 법전 방장큰스님을 모시고 주지이하 총림대중들이 뜻을 모아 이곳 대적광전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매일 4분 정근으로 『호국영령과 선망부모, 무주고혼 등 제위를 위한, 1029일 천도재동안 21회의 49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 천도기도 입재 일시 : 2001년 1월 9일 (2000.12.15) 11시
- 천도기도 회향 일시 : 2003년 11월 3일 (2003.10.10) 11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 집 전 : 주지 박세민 스님, 노전 선행스님
- 기도비 : 명축시대, 천정 생축 1029일인 백만원(본납도 가능)
- 전화문의 : (055)931-8771 · 8772 FAX : (055)931-1010
- 접수안내 : 천도법회 동참하실분은 양력 2001년 1월 7일 까지 생축, 명축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농협 : 843174-51-009176 예금주 : 해인사 천도법회
 우체국 : 611806-01-002618 예금주 : 해인사 천도법회

특히 2545년(신사년)은 삼재(태지, 토기, 양미)와 윤달이 겹치는 어려운 때를 맞아 우리 조상들이 대장경 관각에 의한 부처님의 공덕으로 국난을 극복하였듯이 이제 이러한 팔만대장경관이 모셔진 성스러운 도량에서 봉행하는 천도법회로 국난은 극복되고 불자님의 가정과 직장에 도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을 확신합니다.

매번 49재에 동참하는 불자님들에게는 큰스님의 설법으로 참된 불자의 길을 열어 복덕과 지혜가 충만케 할 것이며 위패를 모신 영가에게는 부처님의 법식과 법언을 베껴 일체 호국영령을 안온하게 하며, 불자님들의 선망부모와 무주고혼 영가들로 하여금 왕생극락케 하고 국가는 태평하고 민생은 안정되어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고자 해인사가 창건된 이후 가장 긴 시간인 1029일 동안에 걸쳐 147회의 재와 21회의 49재와 법문으로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 의하면 한 번의 49재를 봉행하여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영가 모두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다하였는데, 해인성지에서 오백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의 법력과 염원으로 1029일 동안의 천도야말로 희귀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인사 영가천도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가내의 모든 권속들의 생존자는 소망이 성취되고 돌아가신 모든 영가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나아가 성불의 인연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증명 방장 법전 대종사 주지 박세민 합장

불기 2544년 12월